

목포시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30호봉까지 인정... 교통보조비·자녀학비수당도 지급

전남도내 타 지자체 직원 처우 개선 요구 잇따를 듯

올해 순천시와 광양시에 이어 목포시도 내년부터 시 산하 공무원(옛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체계를 현행 ‘단가제’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 이외의 전

남지역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이 취약한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해

3가지 종류의 임금 단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같은 직종의 공무직은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호봉제는 행정보조, 현업근무, 전문시설관리 등 유형별 3개 직군으로 구분해 기본 호봉을 책정하며, 호봉 간 격차를 1만원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100%, 기간제 및 군 경력 2년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조경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등도 지급한다.

특히 기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지역 타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에 소속된 195명 공무원 직원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급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3.4%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근무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된다. 목포시는 공무원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184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 2011년에는 휴가제도 규정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했으며, 올해 8월에는 대외직명을 실무원, 직종을 공무원직으로 변경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무안~신안 더 가까워졌다

압해~운남 도로확장 개통

전남 서부권의 중심축인 무안과 신안이 한발 더 가까워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명수)은 26일 “신안군 압해를 북통리와 무안군 운남면 연리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압해~운남 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 개통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차량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안과 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압해~운남 도로 확장공사’는 압해읍에서 운남면에 이르는 총 6.4k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공사(교량 4개 포함)로 총사업비 1412억원이 투

입됐으며 지난 2003년 6월 착공했다.

도로가 개통되면 신안 압해도와 무안이 직접 연결돼 기존 목포를 경유하면서 30분 이상 소요되던 두 지역 간의 이동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된다. 개통 뒤에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농수산물 수송 여건 개선과 막대한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7일 개통행사에는 이윤석 국회의원과 김철주 무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손명수 익산국토청장, 무안과 신안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수 거문도·백도 선상 해맞이 행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3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3위에 랭크된 여수 거문도·백도에서 갑오년 새해맞이 선상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여수시 삼산면 분산일출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새해맞이 일출행사를 갖고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유람선 무료 승선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상에서 못할 일출장관을 만끽하고 행사 후에는 1시간 가량 전해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거문도의 절경을 감상하고 새해 떡국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또는 관광객은 오는 30일까지 삼산면사무소(061-690-2607)로 전화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거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25~50%의 여객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영광 테마파크 눈썰매장 개장

영광군은 26일 “지난 4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영광테마파크가 영광군 백수읍 소재지인 예전 백수고등학교 자리에 호남 최대 규모의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영광테마파크는 2만2468㎡ 부지에 80억원을 투자해 다양한 어린이 놀이 시설과 캠핑 지원시설, 수영장, 펜션, 의류 아울렛 등이 조성되는 멀티 테마파크로,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 영광테마파크 측은 완공에 앞서 지난 25일 눈썰매장과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개장해 내년 2월1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강골마을 이영였기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 주민들이 지난 25일 초가집 새 지붕을 얹기 위해 옹마리를 들고 집단을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골마을은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로, 3채의 한옥과 정자가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완도 수산고 교장 출장일수 논란

2011년 170일·2012년 174일·올 125일

한해 비용도 700만~1100만원 사용

완도 수산고 교장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0일 이상의 출장을 다니고 출장비로 한 해 최대 10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장은 지난달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완도 수산고 이모(56) 교장은 지난 2011년 170일, 2012년 174일, 올 들어 10월 말까지 125일의 출장을 다녔다. 출장 예산만 최소 700여만원에서 1100여만원까지 사용했다.

이 교장은 지난 2012년 완도 수산

고가 마이스터교로 지정된 뒤 교육과정 협의 및 식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위해 출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육계에서는 학교 전 반을 관리·감독해야할 교장이 1년 수 업일수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 마이스터고 교장들과 출장일수를 비교해 출장이 불가피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진행된 전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한국능력직업개발협회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한 의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교장은 “모든 출장은 완도교육지원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출장일수가 잦은 것은 그만큼 학교 발전을 위해 외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순천만정원 봄·가을 9~18시 운영

성인 5000원... 순천시민 50% 할인

운영조례 의견 수렴 설명회

순천시는 오는 27일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정원박람회에 참여했거나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4월20일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순천만정원’으로 재개장함에 따라 현재 입법에 고중인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정원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순천만정원 개장 준비계획 전반에 대한 시민 보고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안 설명, 순천만정원 운영 활성화 관련 시민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조례안은 봄·가을에는 9시에 개장해 오후 6시에 폐장하며, 여름과 겨울에는 폐장시간을 한 시간씩 연장·축소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관람료는 개인 성인의 경우 5000원을 받되, 시민에 한해 50%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과 시의원, 주민대표 20명으로 ‘순천만정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정원 운영에 나선다는 내용과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순천만정원개장준비단 조병철 단장은 “내년 4월20일 새롭게 태어날 순천만정원은 시민이 행복한 삶의 비전을 실현할 모티브가 된만큼 시민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탁없는 고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제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빵드뱅크>의 이호영 대표

CHAN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